

“글로벌 시장 뚫어라” 오늘 광주서 수출상담회

차·조선·화장품·바이오 등 국내외 110개사 참가
코트라·산단공·광주 북구 공동 개최...수출 컨설팅도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코트라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 북구가 공동 주최한 '2019 북업코리아 수출 상담회'다.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마련된 이번 상담회에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해 해외 바이어 24개사가 참여한다. 분야별로는 밸브·파이프·펌프·철강 등 조선기자재 4개사, 브레이크패드·엔진·배터리·차량카메라 등 자동차부품 6개사, 화

장품·바이오기업 14개사 등이다. 특히 베트남 자동차부품 글로벌기업 '트롱 하이 오토 코퍼레이션',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 '제우스캠', 러시아 자동차부품사 '스체필러', 중국 조선기자재회사 'cst 트레이딩 리미티드',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오기업 '질프 캐어 팩토리' 등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 스타트업들과 1대 1 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분야와 소비자 및 화장품 등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86개 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수출 기회를 모색한다. 조선업체는 에스디엔·에코피스·성원·코센 등 6개사, 자동차업체는 남도금형·대경에이티·화인특장·서흥전장·코스텍 등 16개사, 화장품업체는 록바이오·링크옵틱스·에이아이엔티·매종 등 17개사, 소비재는 나눔테크·만나식품·한국제다·명신메디칼 등 35개사가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 북업 코리아에서는 일반 상품 수출 이외에도 스타트업 해외진출, 해외프로젝트·해외조달 우수 등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특히 코트라, 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 광주세관은 합동 컨설팅을 통해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준다. 또 광주 북구 소재 사회적 기업과 수출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도 전시한다.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출기업들을 만나보면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진자 바이어 발굴과 매칭기회를 가장 많이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단지공단, 광주 북구가 공동으로 지역 수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13.56 (+2.96)	금리 (국고채 3년) 1.73 (0.00)
↑ 코스닥 756.81 (+4.89)	↓ 환율 (USD) 1142.10 (-2.60)

연금저축 수령액 월 26만원 '충격'

국민연금 합쳐도 61만원...노후보장 불가능

지난해 연금저축 수령액이 월 26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 노후 보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해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6조 4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으며, 신탁(17조2000억원·12.7%), 펀드(12조1000억원, 9.0%) 등 순이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저축(신탁·수험·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 건수가 31만2000건으로 신규 계약건(30만7000건)을 넘어섰다. 1994년 연금저축 상품 출시 후 해지계약이 신규계약 건수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해지계약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신규 계약이 줄어든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지계약이 4.2%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계약 유입이 15.3%나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이 총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연금저축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1월 은행권이 연금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신규 계약을 받지 않아 버린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신탁 상품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상품을 팔기보다 유사 상품인 개인형IRP로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대다수 시중은행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여파로 개인형 IRP 잔고는 2017년 1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2000억원으로 25.6% 급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2014년),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소득별로 차등화한 조치(2017년)도 연금저축 상품의 매력도를 반감시킨 요인이 됐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2013년 13.9%에서 2016년 9.0%, 2017년 8.8%, 2018년 4.9%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아침밥 먹고 등교 하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교육청은 9일 목포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생활화 캠페인을 폈다. 이날 행사에는 해남 화산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쌀로 만든 간편식인 삼각 김밥과 우리콩으로 만든 두유 각 1000개를 준비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또 가정에서 쉽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채소씨앗과 토마토 모종, 상토 등도 제공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 주택분양시장 살아나나

4월 분양경기실사지수 광주 14.6p, 전남 13.2p 상승

광주·전남지역 주택분양시장이 점차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광주 83.3, 전남 72.2로 전달보다 각각 14.6포인트, 13.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96.0, 세종 88.2, 경기 86.2로 80선을 회복했다. 전국 전망치는 69.4로 전달(63.0)전망치 대비 6.4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광주 HSSI 실적치는 70.8, 전남은 70.5로 전망치 대비 각각 1.8포인트, 11.5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은 분철 분양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전망치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분양시장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71.1%로 나타났다. 광주·전라권은 75.6%로 7개 권역 중 서울(80.8%), 인천·경기권(77.2%)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공급물량이 증가하며 미분양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물량의 경우 침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달대비 30% 상승하며 4월 전망치 95.4를 기록했다. 미분양의 경우 전달과 유사한 수준으로

4월 전망치 108.0을 기록했다. 일반 분양분의 준공후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당분간은 미분양 위험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달 예상 분양률도 70%대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80.8%)을 제외하면 80% 미만(50~70%) 수준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고분양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전달대비 7.9포인트 상승하며 100.0을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분양사업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정 분양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격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 엔트리 SUV '베뉴' 렌더링 공개

현대자동차는 9일 올해 하반기 전 세계 출시 예정인 엔트리(생애 첫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베뉴(VENUE)'의 렌더링(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공개했다. 베뉴는 '트렌디한 디자인의 엔트리 SUV'를 콘셉트로 개발된 신차로 오는 17일 미국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베뉴의 전면은 단렘프와 헤드램프를 위아래로 나눈 분리형 레이아웃과 세련된 디자인의 캐스캐이딩 그릴로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측면은 개성 있는 캐릭터 라인과 볼륨감 있는 휠아치, 후면은 넓은 범퍼 디자

인과 모던한 리어램프가 특징이다. 베뉴 내부에는 심리스(테두리가 없는) 8인치 멀티미디어 시스템, 워형 디스플레이의 공조 버튼, 개방형 수납공간 등이 탑재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베뉴는 첫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야심작"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경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라·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시군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주 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